



2021년

5

ENACTUS YONSEI

**PROJECT
UPDATE**

Enactus Yonsei

About Enactus Yonsei

인액터스 연세는 기업가 정신의 실천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국제 비영리 조직인 인액터스 소속입니다. 인액터스 연세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비즈니스적 시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동네 빵집 활성화 프로젝트인 동네빵네, 중고서점 사업의 활성화 프로젝트 책잇아웃 등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2004년 설립된 이후 18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5개의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액터스 연세는 '행동으로 세상을 바꾼다'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회 문제, 혹은 대상자들에게 있어서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흔히 말하듯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잡는 법을 알려주며,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던 역량을 비즈니스적으로 해석하여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원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Website | www.enactusyonsei.org Instagram | [@enactus_yonsei](https://www.instagram.com/enactus_yonsei) Facebook | [facebook.com/yonseienactus](https://www.facebook.com/yonseienactus)

지음

지음은 이렇게 활동합니다

지음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팟캐스트 <사부작>, 이를 바탕으로 출간한 에세이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살립니다>를 제작한 성과가 있습니다. 현재 <사부작>은 성공적으로 이관, <평특살>은 대형서점 입고 후 지속적 홍보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근 MBC 통일전망대, KBS 라디오에 출연하여 에세이 <평특살>과 지음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음은 현재 남북청년들이 함께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세대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익숙하며, 탈북 동기 역시 자아실현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의 청년 대학생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대학생의 교류를 콘텐츠로 재탄생시켜 남북 청년들은 다르지 않다는 사실 아래에서 MZ세대를 겨냥한 자연스러운 인식 개선 및 콘텐츠 수익 창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음은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지음은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지속 가능하게 제작하여 이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친숙도를 제고합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으로 인해 갈라졌던 지난 역사를 넘어, 북한이탈주민들이 부끄러움 없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북한을 남한에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을 북한에 소개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가교를 만드는 역할도 병행합니다. 지음은 모두가 'I'm from North Korea. So what?'을 외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차별과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를 짓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이메일 project.jieum@gmail.com 인스타그램 @project.jieum 홈페이지 <https://www.enactusyonsei.org/jieum>

Hi, Dear

Hi, Dear는 이렇게 활동합니다

프로젝트 하이디어는 현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이션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새로운 BM은 시니어 중에서도 범위를 좁혀 보다 구체적인 범위의 시니어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 BM 선정을 두고, 두 가지의 유력한 BM이 각축을 다투고 있습니다.



첫째, 전문직 종사 후 퇴직한 시니어와 보호종료 청소년을 이어주는 후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퇴직자 BM이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수도권에 거주하는 과일 깎는 능력과 이를 위한 기초적인 체력을 보유한 시니어가 과일을 꾸준히 챙겨 먹고 싶은 대학생 1인 가구에 맞춤형 과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취생 과일 구독 서비스 by 시니어 BM이 구성되었습니다.

하이디어는 세부 TF로 나뉘어 시장조사, 대상자 인터뷰, 관련 법규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진행할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Hi, Dear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하이디어는 시니어의 보다 다채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연말 서대문구 50+ 센터와의 협업을 마친 이후, 코로나 19로 인해 약화된 시니어 일상생활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BM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이디어는 작년 한 해 시니어 취미파트너 서비스를 기획하며 얻은 대상자에 대한 더욱 높은 이해 그리고 서비스를 운영하며 축적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니어의 필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솔루션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이메일 enactushd@gmail.com 인스타그램 [@hidear_official](https://www.instagram.com/hidear_official) 홈페이지 <https://www.enactusyonsei.org/hi-dear>

Colors

Colors는 이렇게 활동합니다

컬러스는 동안제일복지센터 우분투 초콜릿의 매출 상승을 위해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객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컬러스는 수제 초콜릿 관련 질문지를 자체 제작해 639명의 응답을 얻어냈습니다. 질문지 분석을 통해 잠재 소비자의 성향과 우분투 초콜릿의 현재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컬러스는 질문지를 통해 얻은 고객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동안제일복지센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14일, 컬러스는 동안제일복지센터에 방문해 원데이 클래스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마치고, 동안제일복지센터의 원장님과 피칭을 진행했습니다. 피칭에는 그동안 준비한 지난 프로젝트 성과와 동안제일복지센터의 현 상황, 고객 분석을 통한 리브랜딩의 필요성, 컬러스가 제안하는 마케팅 방향성 등이 담겼습니다. 동안제일복지센터 원장님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토대로 컬러스는 크라우드 펀딩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제케이크 중계 플랫폼 서비스 케이크지도와 미팅을 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Colors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컬러스는 강남장애인복지관 예술가와의 협업을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를 새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의 낮은 임금을 문제 의식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간접적

방법으로 장애인보호 작업장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컨설팅형 BM을 구상했습니다. 컬러스는 동안제일복지센터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동안제일복지센터가 제작하는 우분투 초콜릿의 매출을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초콜릿 메이커의 최저 임금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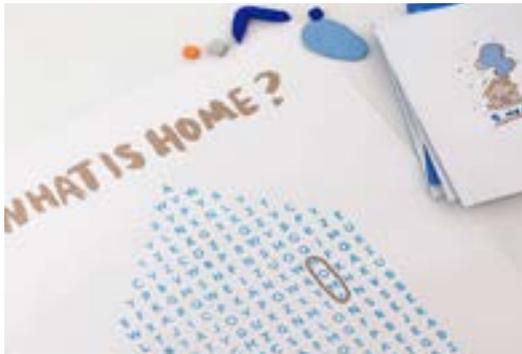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이메일 enactusys_colors@naver.com 인스타그램 @project.colors 홈페이지 <https://www.enactusyonsei.org/colors>

도시,樂

도시,樂은 이렇게 활동합니다

도시,락은 현재 시각디자인과 학생 한 분을 대상으로 인쇄·펀딩 컨설팅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텀블벅을 통해 '단순한 공간 너머의 집, <WHAT IS HOME> 엽서북'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되었고, 5월 22일 기준 목표 펀딩 금액의 161%를 달성했으며 6월 초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SNS 광고 집행 TF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고보고서를 작성하고 디자이너님께 전달해 추가 광고 집행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도시,락이 이번 BM을 구상하며 기획한 '인쇄실명제'를 차근차근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인쇄실명제란 펀딩제품을 제작한 인쇄소의 정보를 기록 및 홍보하는 캠페인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펀딩스토리에 참여 인쇄소 정보를 표기했으며, 인쇄거리 정보가 담겨있는 미니북을 소비자들에게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펀딩제품 소비자를 인쇄거리 소비자로 유입하기 위해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을지로 카페 바우처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시,樂은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도시,락은 '변하는 세상, 영원한 가치'라는 미션을 가지고 인현동 인쇄거리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인쇄거리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작년 '인현동 인쇄거리가 찍어낸 영화 속 도시, City-graph' 포스터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으며, 목표 펀딩 금액의 1063%를 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통해 현재는 시각디자인과 학생 대상 인쇄·펀딩 컨설팅서비스라는 새로운 BM으로 MVP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도시,락은 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이 쉽게 인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쇄거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이메일 projectdosirak@gmail.com 인스타그램 @project.dosirak 홈페이지 <https://projectdosirak.oopy.io/>

Normal People

Normal People은 이렇게 활동합니다

노멀피플은 상권과 소상공인의 특색을 담아낼 수 있는 판로 확장의 방안으로 밀키트를 채택하여 신촌의 한식당 '논지당'과 협업을 확정, 제품 기획 및 제작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밀키트 제작 메뉴 선정 및 이용 고객층 조사를 위해 식당 방문 손님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밀키트 이용 경험이 부족한 협업 식당 사장님 및 팀원과 다같이 밀키트 시식회를 통해 기성 제품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장기적 관점에서 대상자의 Pain Point 분석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멀피플은 신촌 내 상인들의 상황을 더욱 깊게 파악하고 대상자 중심의 면밀한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주민 커뮤니티인 신촌동 주민자치회 내 지역활성화 분과의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사전 워크샵과 2회에 걸친 정기회의에 참여하며 대학생의 관점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Normal People은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노멀피플은 '소상공인의 혁신을 통한 신촌 상권의 도약'이라는 미션 아래 활동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신촌 상권은 2000년대 이후 거듭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프랜차이즈화, 교통의 불편함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제난

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존에 있던 문제들이 부각되었고 노멀피플은 이에 주목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판로 확장 및 신촌의 특색을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개인의 역량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이메일 teamnormalpeople@gmail.com 인스타그램 [@teamnormalpeople](https://www.instagram.com/teamnormalpeople) 홈페이지 <https://www.enactusyonsei.org/np>

